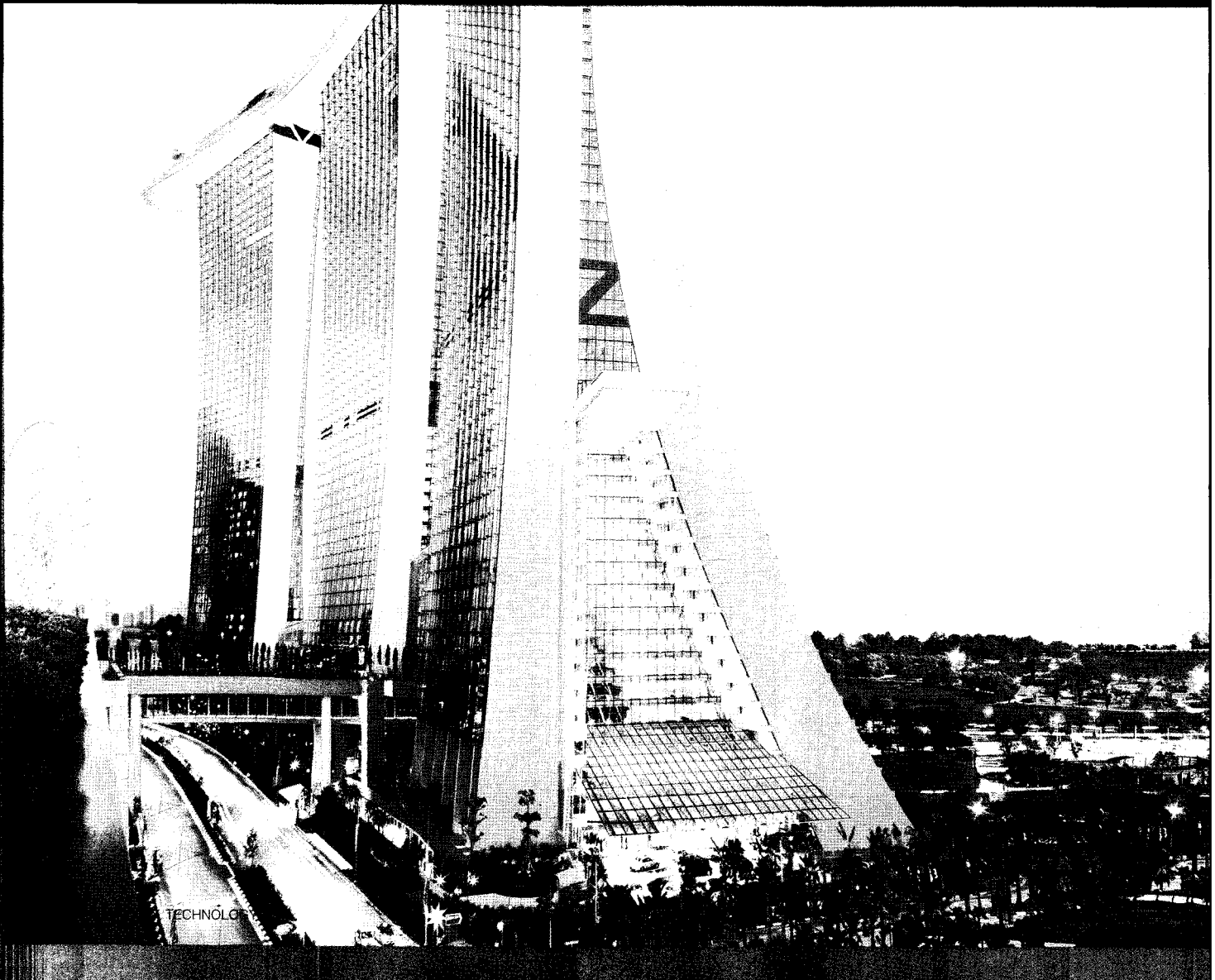


진화와 변화에 두려워하지 않는 쌍용건설의 안전관리

- 쌍용건설안전환경부 -

취재·사진 | 최종덕 기자(safeeng@safety.or.kr)

국내 시공능력평가는 15위이지만 해외고급건축 시공실적 1위로 국내보다 해외에서 그 명성이 높은 쌍용건설이 시공 능력 뿐만 아니라 안전관리분야에서도 새로운 지평을 열어가고 있다. 안전관리로 대한민국 이미지까지 상승시켜주고 있는 쌍용건설은 2009년 대비 2010년 재해율 80%라는 놀라운 감소율을 보이며 올해 건설안전계의 디크호스로 떠오르고 있다. 앞으로 국내에서도 1위 쌍용건설로 급부상하기 위해 가치로 두고 있는 것이 바로 안전관리다. 이들 안전관리를 총 진두지휘하는 사령본부 안전환경부를 찾아 쌍용건설만의 안전관리에 대해 들어보았다.





변하고 있는 쌍용건설

산재사망 다발 건설사 중 하나로 대표이사가 국정감사에까지 출석해야 했던 2009년은 쌍용건설에 있어 치욕적인 한해였다. 이를 거울삼아 재도약의 계기를 삼은 것도 2009년이라는 점에서 한편으로는 다행스러운 일이 아닌가 싶다.

2010년 쌍용건설의 목표는 주관 건설현장 모두에서 중대재해 발생건수는 '0(zero)', 쌍용건설이 2009년과 180도 달라졌다. 그 중심에 기업문화를 바꾸기 위한 안전문화 정착이 있다.

이에 대해 안전환경부 전주구 부장은 "특정인이나 부서에서 잘했다기 보다 임원들의 강한 의지와 현장 교감을 통해 만들어낸 결과들"이라고 평했다.

격상된 쌍용건설의 안전

한두 사람의 노력만으로 건설현장의 안전관리가 이루어질 수는 없는 일이다. 공통의 목적의식을 갖고 함께 획일적으로 안전관리를 할 때 가능한 것이 바로 안전관리다. 여기에 알려주고, 재촉하는 가이드 역할을 하는 이가 있다면 금상첨화. 쌍용건설은 이러한 모든 면을 고루 갖추며 조화를 이루었다. 바로 쌍용건설 안전환경부가 그렇다. 90년대 초반 인사총무부의 작은 과로 시작하면서 안전의 중요성을 놓쳤던 안전관리가 기업경영을 안전보건경영으로 이끌 만큼 절대적인 기업가치로 대접받을 수 있었던 것도 안전환경부가 전현장의 멘토 역할을 톡톡히 했기에 가능했다. 여기에 타 건설사에 비해 늦었다고 인식하고 안전경영에 매진한 경영진의 의지와 함께 더욱 치열하게 안전시스템을 준비하고 정착시켜 고품격 안전 쌍용건설로 크게 격상시켰다.

기술안전제도 · 사전위험성 평가 시행

쌍용건설 안전관리에는 양 기둥이 있다. 기술안전제도와 사전위험성평가.

기술안전제도는 안전부서, 공사부서, 기술부서가 한자리에서 구조적 안전성 등을 파악하고 논의하며, 여기서 나타난 문제점은 각 부서의 적극적인 지원을 받아 우선 안전성을 확보한다. 특히 토목기술부와 건축기술부가 함께 참여함으로써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 공정에 대해 사전 대비를 철저히 행하는 제도다. 이에 전 부장은 "시공의 주요 공법 등 안전구조를 검토해야 하는 사항에 대해 양대 핵심부서가 함께 참여한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이야기한다. 금년부터는 기술안전제도를 더욱 확대시켜 착공 이전부터 시행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

더불어 사전위험성평가도 기술안전제도와 함께 핵심 안전관리다. 사전위험성평가는 전현장이 무재해 쌍용건설을 만든 근간이다. 사전위험성평가 시행에 있어 핵심 인물인 현장의 공사팀장 등



200여명에게 사전위험성평가 3개 과정, 기술안전 4개 과정의 교육과정을 이수토록해 사전위험성평가의 질을 높였고, 이 중 KOSHA 18001 심사원(컨설턴트) 3명을 배출시켰다.

썩거나 퇴보하지 않는 쌍용건설의 안전관리시스템

기업문화와 안전문화가 뿌리내리기 위해서는 의식과 습관이 변해야 한다. 이를 위해 쌍용건설 안전환경부가 추진하는 사항 중 교육이라는 테마를 가장 많이 선호한다. 유독 현장소장을 대상으로 하는 워크숍과 일선 현장 사람들에 대한 교육이 많은 이유도 이 때문이다. 지난해만도 일선 현장 식구 1,200여 명에 대해 교육을 실시하기도 했다.

그러나 무엇보다 교육을 교육으로 끝내지 않는다는 점이 쌍용건설의 교육 방법이다. 교육 받은 내용은 현장에 실제 적용될 때 그 효과는 발휘되는 것. 실제 적용되고 있는지는 외부 전문 컨설팅 기관을 통해 평가되고 사내에 공지된다. 이러한 강력한 교육과 평가방법은 현

장 소장들로 하여금 반발도 사기도 했지만 쌍용건설 안전환경부의 강력한 의지 앞에서는 순응 하게 되었다.

이에 대해 전준구 부장은 “단순히 점수를 매기고 벌을 주자는 의미가 아닌, 안전사고 사전예방을 위한 필수불가결한 조치”라며 “바로 잡힌 안전관리 시스템은 고품격 품질 상승으로 이어진다.”라는 강한 의지를 보이고 있다. 이처럼 새로운 것을 교육하고, 확인하고, 평가하는 쌍용건설의 안전관리시스템은 흐르는 물과 비교를 많이 한다. 오염된 물은 오염된 물로 흐를 수밖에 없고, 고여 있는 물은 썩을 수밖에 없는 것과 같다는 점이 안전과 유사하다는 것이다. 즉, 잘못된 안전은 잘못된 문화로 자리 잡을 것이고 변화를 추구하지 않는 안전은 시대에 쇠퇴해 퇴보되는 안전관리로 전략한다는 것이다. 이는 곧 현장의 고질적인 안전사고의 원인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교육과 확인 그리고 평가를 강력히 추진하는 이유다.

진일보를 위한 쌍용건설의 안전관리

2009년 이후 쌍용건설은 많은 변화를 해왔다. 그 중 안전분야는 괄목할 만한 성장을 하면서 쌍용건설이 발전하는데 중추적인 역할을 했다. 앞으로도 이러한 진보적인 안전관리는 지속될 전망이다. 먼저 현장 안전전문가의 정규직 비율을 지속적으로 늘리고, 비정규직 안전전문가는 동기부여를 위해 성과관리와 연봉조정된다. 또한 시스템 심사원 10명 이상 추가 배출과 인터넷 교육과정 도입을 통해 위험성 평가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한 안전인프라가 구축된다. 이 밖에도 기술안전 지원 대상을 확대, 착공 전 위험요인 대책수립 제도 정착, 교육용 아바타 시스템과 연계한 공중별 위험 모델 선정 등 안전관리에 있어 전현장 구성원 모두는 공유하고 진보된다.

변화를 두려워하지 않고 안전에 대해 굳은 의지를 가지고 있는 쌍용건설의 안전환경부는 앞으로도 무재해 현장, 무재해 기업, 무재해 국가까지. 이들이 바라는 무재해의 꿈이 결코 꿈이 아님을 보여줄 것이다. ☺

